

01 교회소식

수련회에서 생긴 일들...

살아 계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함으로 변화와 생명의 장이 되어 온 만민 하계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02 생명의 말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인정한다면 믿음의 행함과 충성, 그리고 사랑으로 참 믿음의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

03 신앙상담

온 영과 영은 무엇이 다른가?

순종, 응답, 충성, 물질과 건강 분야로 나뉜 온 영이 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건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의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은 일본 이와오 미나코 집사와 생명의 제단을 만나 건강하고 행복해졌다는 이희갑 집사의 간증.

# 만민뉴스

제591호 2013년 7월 2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올해는 과연 무슨 일이...?”

### 성경 역사 체험하는 만민 하계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로 내달 초 개최



2006년 8월, 기사와 표적이 넘쳤던 전교인 하계수련회 이후 만 7년 만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하는 세계적인 하계수련회가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온 영'을 주제로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개최된다. 해외 24개국에서 참석하는 올해 하계수련회는 영적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근본의 소리를 발하시는 목사의 권능으로 응답과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매년 개최되는 만민의 하계수련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의 현장이다.

1983년 8월, 교회 개척 후 첫 수련회 때부터 그랬다. 출발 전날 수련회 장소인 인천 대부도를 포함한 서울, 경기 일원에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 수련회 당일 새벽에도 요란스런 천둥번개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이재록 전도사는 두 달여 간 금식하고 기도하며 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해 온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통성으로 합심 기도를 했다. 그 뒤 “모두 자기 짐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가세요. 우리가 발로 땅을 밟는 순간 비가 멎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믿음의 행함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역사해 주셨다. 1층 현관문을 열고 땅을 밟는 순간 장대비는 물보라처럼 흩날리더니 순식간에 멎어 버린 것이다. 여호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거센 강물이 흐름을 멈춰 강을 평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성경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여호수아 3장).

1986년 7월, 빛과소금선교회 수련회가 울릉도에서 있었다. 일정을 마치고 상경하는 날, 태풍주의보가 내려 바다에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배들은 발이 묶여 있었다.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빛과소금선교회 회원들은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이날 꼭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재록 전도사와 성도들은 작은 오징어잡이 배 한 척을 구해 포함행 큰 배를 탈 수 있는 도동항까지 가기로 했다.

바다 위에는 배를 집어삼킬 듯 집체만 한 파도가 맹렬한 기세로 몰아쳐 왔으나 신기하게도 뱃전을 때리지 못하고 양 갈래로 갈라져 옆으로 살짝 돌아갔다. 오히려 거센 파도가 배를 밀어주니 빨리 갈 수 있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올 수 있었냐며 놀라워했다.

이를 통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을 체험하며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이러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매년 이어졌다.

2001년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던 대학부 수련회 시 ‘별 보기’ 행사 또한 특별했다. 하

늘이 구름으로 완전히 덮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밤이었다. 주변에서는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소리도 요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 보기 행사를 위해 대학부 젊은이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이 목사의 기도 후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젊은이들의 눈앞에는 실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별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2006년 8월, 전북 무주에서 열린 수련회 때부터는 영의 공간을 통해 쏟아져 내린 수많은 잠자리로 인해 모기와 해충이 박멸돼 더욱 쾌적하게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다. 또 잠자리가 성도들의 온몸에 날아와 앉는 행복한 체험도 한다.

31년째 맞이하는 만민의 수련회는 그동안 수많은 성도가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수련회를 갖는 7, 8월은 장마철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전국이 태풍이나 물난리를 겪지만 수련회 장소는 비가 오지 않는 일이 많았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무더운 날에도 수련회 장소는 덥지도 춥

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가 유지됐다.

이 외에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구름의 이동과 출몰, 유성과 별의 이동, 각종 무지개 등 하나님 권능으로 펼쳐진 기사와 표적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고 하나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했다.

어느덧 만민 하계수련회는 전 세계에서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가 됐다. 매년 해외 교역자와 성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작년에만 해도 미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케냐, 파로제도,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중국 등 해외 23개국에서 참가했다.

기쁨과 행복이 해마다 더하는 만민 하계수련회, 올해에는 해외 24개국에서 참가하는 가운데 8월 초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개최되며,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온 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말갈게 씻어줄 생명의 말씀, 점핑 파크 특설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함께 화려하게 진행될 캠프파이어, 또 대대교구별로 경합이 예상되는 체육대회 등 귀추가 주목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태복음 16:15~16)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하지요.

이는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권능과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렸기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중심의 고백이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행함으로써 이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믿는다면 결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였던 행함 그대로를 날마다 쌓고 있어야 하지요. 또한 날이 갈수록 더 깊고 진한 행함을 하나님께 드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사명이나 직분을 받던 날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사명 감당하고자 각오를 다

졌습니까? 열심히 구제로, 전도로 힘쓸 때가 있었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보고 계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든 일, 께은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등 봉사를 했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 힘이 될까를 먼저 생각했지요.

이처럼 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년, 2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고, 늘 있는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도 항상 정성과 감동으로 드릴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목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자요, 나를 사랑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참이라면 이 또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목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생명 바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대로 진실한 행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마음에 명심하고, 어찌하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지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목자의 마음이 되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지키고, 범죄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 다. 자신에게 어떤 해가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 곁을 지키며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신 대로 주의 일꾼이라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믿음으로 한 고백이 참이 될 수 있습니다.

### 2.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충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면 어찌하든

열매를 내고자 노력하는 행함이 진정한 충성이지요.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감당하되, 그 이상으로 더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가 맡은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정해진 시간만 자리를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요? 또한 자기계발에 대한 노력과 발전하는 모습도 없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 생활조차 게을리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무엇보다 충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인 충성입니다. 마음의 악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서 하는 충성,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충성이지요.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육체의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마음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의와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라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해도 그 순간만 회개하고 돌아갈 뿐 시간이 지나면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여전히 사람들과 부딪치고 감정이 상하며, 화평이 깨지는 상황이 생기지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땀 흘려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여전히 간음, 사심, 탐심, 미움이 남아 있다면 이는 육의 충성에 그칠 뿐입니다. 그 마음에 남아 있는 악을 빼버리지 않으면 언젠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될 때 그 악이 생각으로나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또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한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면 불순종이 나오고 육으로 해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신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신앙의 정체를 날기도 하지요. 따라서 비록 작은 죄와 허물이라도 벗어 버리고 선과 사랑과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 3.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줄 수 있어

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영혼을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영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머리 된 일꾼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교회의 원칙과 질서를 내세워 성도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듯한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이 방법이 하나님 나라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길이다.’라며 자기합리화를 시키고 성도들의 요청을 잘라 거절해서도 안 되지요.

비록 그 일이 원칙적으로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며 어찌하든 그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성도들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목자의 귀한 양 떼’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대하듯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요.

만약 자신이 담당한 부서나 아랫사람의 실수 또는 허물이 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탓이라 여기며 그것을 책임지고자 해야 합니다. “저 일꾼이 잘못해서 그렇다.”며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지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의 일을 돕고 협력해 선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함과 충성, 그리고 사랑으로 참 믿음의 증거를 내보일 때 역사해 주십니다. 오랜 세월 버리지 못한 비진리도 버릴 수 있고, 깨어지지 않던 의와 틀도 깨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도 헐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다시 한 번 마음에 결단함으로 “진정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참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온 영’이 ‘영’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Q**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 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온 영’이란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과연 ‘온 영’이 ‘영’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A** 영이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진리 자체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육은 ‘영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변질되는 것, 썩는 것이요 추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와 악, 곧 썩고 변질되는 육의 속성을 벗어 버릴 때 영이신 하나님 형상을 되찾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비진리를 다 벗어 버리고 영혼이 잘된 사람은 영의 마음을 이룬 것입니다. 진리만 받아들이며 혼과 육은 주인인 영에게 순종하므로 진리의 생각, 진리의 행함만 나옵니다. 하지만 영의 마음을 이뤘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영의 내용물을 채워야 합니다.

영의 내용물이 많이 채워진 만큼 말과 행동이 덕스럽고 감동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영의 내용물이 50퍼센트, 80퍼센트가 채워지고 마침내 100퍼센트가 채워질 때 온전히 진리로 채워진 온 영의 마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온 영의 마음을 이뤄야 온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의 열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빛의 열매 등 진리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혀서 풍성해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온 영과 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순종, 응답, 충성, 물질과 건강 분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합니다.

**■ 순종**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 계명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온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를 지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순종만 합니다. 그런데 한 자녀는 부모님이 무엇을 명하실 때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까지 헤아려 부모님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이뤄 드립니다. 시키지 않은 것까지 찾아서 부모님 마음에 맞는 방법으로 미리미리 해 놓습니다.

이처럼 온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명하시는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 그보다 넘치도록 순종합니다. 모든 생각과 언행이 법사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 응답** 요한일서 3장 21~2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곧 영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을 받습니다. 또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약 5:16).

그런데 온 영의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즉시 응답받을 뿐 아니라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것이 필요한지 아시므로 미리 예비해 놓았다가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온 영으로 들어가 불같은 기도를 쌓으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막 16:17~18)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베풀 수 있습니다.

**■ 충성** 영의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이상을 해 내므로 영적으로 충성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영의 사람은 온 집에 충성합니다. 즉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되 모든 분야에서 맡은 것 이상으로 넉넉히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집에 충성하려면 성령의 열매가 100퍼센트 맺어야 합니다.

온 영의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소중히 여기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당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사명을 갖고 있어도 모든 분야에서 충성하며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간구하므로 자신이 맡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 물질과 건강**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구할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때 영의 사람은 30배, 60배로 거두지만 온 영의 사람은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온 영으로 들어가면 축복권과 저주권도 임하게 됩니다. 또 영의 사람이 받는 축복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에게까지 임합니다(창 12:3).

영의 사람은 노화가 멈추고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받으니 질병이 틈타지 못할 뿐 아니라 혹여 틈타도 해도 기도하면 즉시 성령의 불로 태움받습니다. 온 영의 사람은 질병 균이나 약한 것이 틈타지 않을 뿐 아니라 회춘해 강건한 체력으로 회복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거나 큰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임을 드러내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7**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 7. 21~7. 27  
July

-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Words of Life
  - 찬양 - 2013 예능위원회 헌신예배
  - 2차 영혼육 1-5
  - 사랑장 18-20
  - 지옥 16-17
  - 창세기 강해 39-43, 99, 102
  -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 요한일서 강해 27-28
- GCN TV 설교** GCN TV Sermon
  - 육과 영 12-13 (이수진 목사)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1-3 (이수진 목사)
  - 기도 (이미영 목사)
  - 오중복음 5 (신동초 목사)
  - 믿음의 분량 2 (천우진 전도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4-5 (영구영 목사)
- 간증 프로그램** Testimony
  - 크리스천 투데이 19, 21, 23, 25, 26, 28
  - GCN 간증 스페셜 14-18
- 찬양 프로그램** Praises
  - GCN 파워프레이즈(2) 12-17
  - 2012 아동예수제
  - 2012 여름성경학교 '파워저져스'
  - 2012 6개연합 캠프 파이어
- 해외성회 시리즈** Overseas Crusade
  - 이스라엘연합대성회 1
  - 뉴욕연합대성회 종합편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 “권능의 기도로 아들의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았어요”

이와오 미나코 집사 (일본 벳부만민교회)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참된 안식을 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던 중, 저는 요시다 요네코 성도님을 통해 벳부만민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가또오 이사오 목사님이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치료 역사를 베푸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벳부만민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드리는 예배 시 당회장님의 설교는 생명력 넘치는 감동의 메시지였고, 성가대와 니시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 예능팀의 특송은 아름다운 천국을 연상케 했지요.

2009년 10월, 저는 사모하던 서울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 감동 자체였지요. 밝고 깨끗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단 위에서 펼쳐지는 찬양과 무용은 매우 은

혜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당회장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한 무안단물터에 방문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셔서 천국의 정경과 하늘에 펼쳐진 다양한 빛들과 황금 빛 등을 보았지요.

이처럼 만민중앙교회 방문은 시종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후 매년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도 받았지요.

특히 2011년 10월, 저는 가족 문제로 인해 어머니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은 후 기적적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었지요. 2012년 10월에는 둘째 아들의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당시 아들은 매일 약을 복용하며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력증과 불면증, 우울증이 라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지요.

저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아들에게 당회장님께 기도받

은 것을 말해 주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온전히 치료받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병원에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지요. 과연 당회장님의 기도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졌고, 얼굴도 밝아졌지요. 무기력증은 물론 불면증, 우울증까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벳부만민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팔복 등 당회장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참임을 증거하는 권능의 역사를 통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요.

요즘 저는 아름다운 천국에 많은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과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있지요.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평생 복용해야 할 혈전 용해제 없이도 건강합니다”

이희갑 집사 (3가나안선교회)

1988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후천성 심장판막증으로 인해 인공판막 2개를 이식받았습니다. 그 뒤 평생 피를 묽게 해 주는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살아야만 했지요.

의사 선생님은 만일 이 약을 먹지 않으면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혀 사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오랫동안 약과 병원을 의존하며 살았지요. 장남으로서 집안에 버팀목이 되어 하는데, 오히려 부모님께 짐이 되고 걱정만 끼쳐드리니 너무 죄송하고 힘겨웠습니다. 이러한 제게 하나님 은총이 임했습니다. 여동생 이희령 집사의 전도로 2004년 11월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지요.

2006년 3월, 사랑니를 뽑는데 지혈이 되지 않았습니다. 혈전 용해제를 복용해 왔기 때문에 지혈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를 삼키며 지낸 지 3일째 되던 새벽, 급기야 혼절

하고 말았습니다. 급히 연락받고 달려온 정진영 목사님(당시 부교구장)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시자 비로소 지혈이 돼 혈색이 돌아왔지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뢰해야겠다는 믿음으로 약을 끊었습니다. 그 후 당회장님 기도로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지요.

그 해 8월에는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교인 하계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교육 후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 주셨지요. 수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제게 믿음이 됐습니다. 또한 잠자리 때의 출현으로 모기와 나방 등이 사라지고, 폭염 가운데에도 수련회 장소는 연일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무지개와

별의 이동 등 하나님께서는 섬세한 사랑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이한 역사들을 펼쳐 주셨지요.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건함을 주세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해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이 말을 들으니 무척 반가웠지요.

그 뒤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경기도 이천 지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장님과 일꾼들의 일을 하나하나 도와드렸지요. 지성전에서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시다 보니 방송실 운영, 광고, 점심 서빙 등 제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더욱 행복했지요.

이처럼 건강한 몸으로 무언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고,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진주만민교회 경남 진주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순천만민교회 전북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관북동 535-16 ☎041)881-7000, 010-3030-7025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261-4217, 010-2759-7017
●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장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관북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천동 336-6 ☎033)261-4217, 010-2759-7017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관북동 535-16 ☎041)845-0617, 010-2278-064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충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2468, 010-7940-936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충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
	● 충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청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	
	● 충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미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미산회관 뒤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아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